

角氏바위 절

申 榮 勳
(文化財委員會 專門委員)



淨水寺法堂과 그 주변

1
스님이 처자를 두고 入山하면서 俗緣을 멀리하고자 다른 나라에 갔다. 집에서 그리움에 몸부림 치던 부인이 스님 가신 곳을 수소문해 본다.
朝鮮땅 江華島의 淨水庵이란 곳에 住僧이 되었음을 알았다. 水陸萬里 머나먼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허탈하고 만다. 그러나 그렇게 좌절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願을 세우고 스님 계신 곳에 ‘가게하여지이다’ 기원하면서 스스로 죽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져 스님 계신 곳에 가게 되었는데 스님의 悟道를 깨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위가 되었다. 어느날 갑자기 절 옆에 생겨난 바위를 두고 스님들은 이상히 여겼지만 得道한 스님들은 그 바위의 정성을 깨닫고 角氏岩이라 이름지어 주었다.
이런 전설이 朝鮮朝 때의 문헌 등에 기록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편찬한 당시의 공식문서인 邑誌에도 채록되어 있다. 읍지에서는 부인이 찾아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였으나 듣지 않으므로 드디어 죽어 바위가 되었다. (來請歸不得死化爲石)고 하고 그래서 그 바위를 각씨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名其石曰角氏岩)고 하였다. 이 바위

는 절 앞에 있는데(岩在寺前)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전하여 오고 있노라고 하였다.
각씨바위가 있는 淨水庵은 대원군이 서양의 함대와 격전을 벌였던 전적지로 지금도 그 이름이 유명한 경기도의 江華島內에 있는데 邑誌에는 摩尼山의 동남쪽 바다를 바라보는 背山臨海한 자리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淨水寺로 부르며 傳燈寺를 지나 한참을 가다가 마니산 골짜기를 따라 깊이 들어간 곳, 능선을 타고 오른 가파른 길이 막다른 자리에 높게 축대를 쌓고 지은 작은 규모의 절이

다. 경내에 怪岩巨石들이 벼랑을 이루기도 하였는데 法堂 서편으로 뜬바위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 법당 앞 가당에서 내려다 보면 일망무제의 黃海가 넘실거린다. 좁은 소견의 인간 일지라도 浩然한 氣를 느낄 그런 호방함이 발아래 전개되어 있다. 京畿道 江華郡 華道面の 淨水寺이다.

경내에는 淨水寺法堂(寶物第161號)이라 부르는 正殿과 그 뒤쪽 축대 위에 있는 三聖閣과 스님이 거처하는 寮舍 한 채가 있다. 건물이라고는 이것뿐인 작은 절이다.

이런 깊고 외진 자리, 바다만이 바라다 보이는 자리, 信徒라고는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자리에 외롭게 절이 자리 잡는 일은 우리에게 늘 궁금한 수수께끼의 한가지이다. 어떻게 지을 수 있었고 어떻게 먹고 살았던 것일까의 궁금증이고 누가 發願하고 이런 자리를 어떻게 옹케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의 궁금증이다. 淨水寺의 寺記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

朝鮮朝 때 江華府엔 喬桐과 永宗防營鎮이 예속되어 있었다. 이 세곳에는 다음과 같은 대소의 절들이 있었다.

① 江華府

- 傳燈寺 在鼎足城 史閣之側
- 天齋庵 在摩尼山北麓
- 善首庵 지금 없음
- 國淨寺 在高麗山東麓
- 白蓮寺 在高麗山北麓
- 積石寺 在高麗山西麓
- 花山庵 在府南山
- 月明寺 在三海面
- 水月寺 在三海面
- 彌勒寺 지금 없어짐
- 德藏寺 在鎮江
- 四王寺 在松岳山
- 龍藏寺 在府西城外
- 弘陵寺 在弘陵下
- 禪源寺 在仙源面
- 鎮海寺 在甲串北萬壽山下
- 龍堂寺 在龍津南
- 普文庵 在煤音島
- 汪林寺 在長嶺星井西
- 水陸庵 在府南山之陽

② 喬桐

- 華嚴寺 在府山華蓋山南麓

③ 永宗

- 瞿曇寺 在白雲山



花斗牙(柱心包)의 구성(淨水寺法堂)

이들의 절은 대부분 布教의 儀禮를 위한 佛敎的인 宗教建物로 창건되고 유지관리 되었겠지만 그중에는 國家를 위한 또는 齋室과 같이 이용될 목적으로 경영되기도 하였다. 傳燈寺는 史閣을 보존하고 管内의 여러 절을 다스리기 위하여 창건되었고 天齋庵은 摩尼山 塹城壇에 設行山祭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관리들의 숙소로 경영되었다. 弘陵寺는 고려의 高宗의 능인 弘陵을 수호하기 위하여 능을 쓰면서 함께 지었던 절이다. 鎮海寺는 禁衛營의 軍器를 보존하고 이웃 바다를 수호하기 위하여 창건되었고 永宗의 구담사(瞿曇寺)는 국방을 위한 경계초소와 같은 구실을 위하여 절을 지어서 절에는 僧將 1名(월급인 料米를 六斗씩 받았는데 大同米에서 주었다)과 瞭望僧 3名이 기거하고 있었다. 요망승(瞭望僧)들의 소임은 바닷가에 높이 솟은 白雲山에서 바다로 침입할지도 모를 荒唐船(일종의 해적선)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悟道를 위하여 精進하는 스님을 위하여 구담사를 지었던 것은 아니었다. 非佛敎的인 寺庵의 대표적인 한 예가 되겠는데 護國佛敎로 받아들인 정책적인 배려가 삼국시대 이래로 성행하였던 것이라면 이런 유형의 절들은 歷代로 존재해 왔다고 보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편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다른 寺庵의 면모가 되며 잘 이해되지 않는 성격이다. 淨水寺도 이런 유형에 속하는 절이었지나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든다. 외딴 자리에서 바다를 바라다보게 된 淨水寺의 위치는 望瞭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이다.

邑誌에 景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다고 하였다.

東岳 李安訥(이안눌 1571~1637) 선생이 지은 短律이 절에 揭板되어 있었는데 그 글귀에 千古의 浮屠殿(부도전, 법당의 탄말)이 마니산 동쪽에 있는데 사방이 隔天豁海하여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이 비길데 없다고 하였다. 이 점은 지금도 옛과 같아서 탈속한 경관을 느긋하게 느낄 수 있다.

2

조선조 때 淨水寺에는 金字佛經(金泥寫經, 보통 紺紙[감지]에 金泥로 불경을 쓴 折帖을 일컬음) 三권이 보관되어 있었다. 安平大君(안평대군, 세종의 세째 아들, 1418~1453)이 쓴 작품으로 일컬어 왔다. 사경은 필치가 반듯하며 金色이 찬란하며 제작이 뛰어나 사람들은 稀世의 佳作로 칭송하였다. 그러나 어느 때인지 一帖이 없어지고 말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 불경을 친히 보기 위하여 遊人이나 墨客들이 이 절을 찾아들었다.

마니산의 塹城壇에 가는 사람들도 일부러 멀리 돌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절벽을 끼고 돌아 겨우겨우 다닐 수 있는 위험한 石路를 崎嶇(기구)하다하지 않고 우거진 숲을 헤치며 길을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하였다. 정수사는 이 불경으로 인



淨水寺法堂御間の 꽃살분합

하여 세간에 유명하였던 것이다.

정수사는 신라 善德女王 8년(639)에 開創되었다. 하나 믿기 어렵다.

선덕왕 때 강화가 신라의 영토가 될 수 없다는 史實을 감안한다면 639년 경에 창건되었었다는 시기만을 추정하면 좋을 것 같다. 精水寺라 이름 지어 불렀다.

조선조 世宗 8년(1426)에 涵虛大師가 重建할 때 바위 부근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서 淨水寺라 고쳐 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 重建役이 기록되었을 때 安平大君의 佛經도 완성되어 奉納되었던 듯 하다. 지금 남아있는 법당을 수리하기 위하여 1957년에 해체하였었다. 상량도리에서 白紙에 붓으로 쓴 上樑文이 나왔다. 「康熙二十八年己巳三月日 淨水寺法堂上樑入文」이라 걸봉에 썼다. 강희 28년은 肅宗 15년(1689)이다. 이 때에 이 법당은 江華府內의 崔氏가 大施主가 되어 여섯번째의 重創工事を 진행하였다.

상량문에는 初一重創 때의 일로 부터 六重創 때까지의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

1) 初一重創 永樂二十一年癸卯⁽¹⁾ 改重創 武寅六世至七十一歲 化主 億能 大木圓孝 熙⁽²⁾ [※1] 世宗 5年 1423년.

2) 二重創 天順二十年戊寅⁽²⁾ 間造成 壬子歲至九十五年 大木法明 淨水寺住持 大禪師 惠令(?) [※2] 二十年은 二年의 誤記, 世祖 4년 1458년.

3) 三重創 嘉靖三十一年壬子 四月十三日 改椽上樑至癸丑 化主 禪熙(?) 大木岐能 [※3] 明宗7年 1552년.

4) 四重創 萬曆十四年丙戌⁽⁴⁾ [※4] 宣祖19年 1586년.

5) 五重創 康熙六年丁未⁽⁵⁾ 閏四月二十一日 上樑 緣化過手 惠輝 副過手 覺璣 助役 元一 供養主 戒俊 愛男 別座 學玲 化主 尚淳 冶匠 愼丑生 [※5] 顯宗 8年 1667년.

6) 六重創 康熙二十八年己巳三月初三庚午日 自始破屋爲始 同月十甲申日丙寅時入改上樑 六重創大施主 秩 江華府內 崔氏逸香 宋之廉兩主

상량문에 따라 寺傳하는바와 같이 世宗 때 개창되었는데 5년(1423)에 상량된바 있었다고 하는 점을 알게되었다. 건물에서 살필 수 있는 法式과 技法에서도 15세기 초엽의 양식을 볼 수 있다. 寺傳의 기록과 상량문과 양식이 일치됨을 알 수 있다. 1957년 해체 전까지는 관계학자들이 조선조 초기의 건물로 평가하고 있었다.

상량문으로 보아 壬辰倭亂이나 丙子胡亂에도 별로 피해가 없었던 것 같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임진왜란 이전의 건물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보면 이런 類例의 존재는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단층의 맞배기와지붕으로 正面이 3간이고 측면도 3간인 것을 후대에 지

금처럼 앞퇴간을 부설하여 4간이 되었다. 말하자면 原形이 아닌데 이 점은 前退의 포작과 뒷편의 포작이 서로 다른 것과 앞퇴의 것이 뒷편의 것보다 시대적으로 뒤진 점에서 알아낼 수 있다.

포작구조는 주심포계라고 부르는 공포로 신라시대 花斗牙라 하였던 공포구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원래의 구조는 外一出目三包作의 전형적인 것이었다. 古來하는 법식을 계승한 유형으로 三國, 新羅, 高麗시대에 盛行하던 포작구조 중의 한가지이다. 포작의 구조된 모양에 따라 옛날엔 그 이름들이 제각기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斷絶이 되고 「三國史記」에 기록된 花斗牙, 拱牙라는 낱말만이 전하고 있을 뿐이다. 마땅히 옛 이름을 찾아내어야 하겠는데 아직 진척이 없어 궁색하게 柱心包系라는 임시적인 造語에 의존하고 있다.

조선조 초기 주심포는 一出目이 보편적이었다. 이 법당의 주심포도 전형을 답습하고 있고 주두 아래에서 헛첨차를 설치하는 법칙도 고스란히 준수하였다. 이에 비하여 앞퇴의 포작은 특별나게 되 二出目이 되었다. 처마를 깊게 구성하려는 배려와 苦心인데 二出目으로 인하여 一出目の 뒷편보다는 二出目の 앞쪽 처마가 깊다.

처마는 앞뒤가 서까래와 부연이 있는 겹처마이다.

二出目으로 포작을 구성하기 위하여는 한 틀을 더 중첩시켜야 하였기 때문에 제공이 중첩되게 되었는데 제공의 쇠서가 중첩되어 다포집에서와 같은 무거운 맛을 풍기게 되었는데 더구나 헛첨차마저 쇠서로 草刻하였어서 그 맛을 더 질게 하였다. 제공이 하나 더 포개짐에 따라 안쪽의 보아지는 아주 큼직하게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무거운 감각을 줄이기 위하여 唐草刻하여 건지를 덜었고 치장을 하였다. 出目 사이에는 巡閣板을 끼어 천장처럼 꾸몄다.

포작이 커짐에 따라 앞퇴의 平柱는 그 높이가 짧아지게 되었다. 기둥은 圓柱. 그 기둥이 짧아짐에 따라 柱間이 넓어 보이게 되었다. 柱間이 넓어 보이는 類形은 흔히 平野가 있는 지역, 그 인근에 있는 건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修德寺 大雄殿 등이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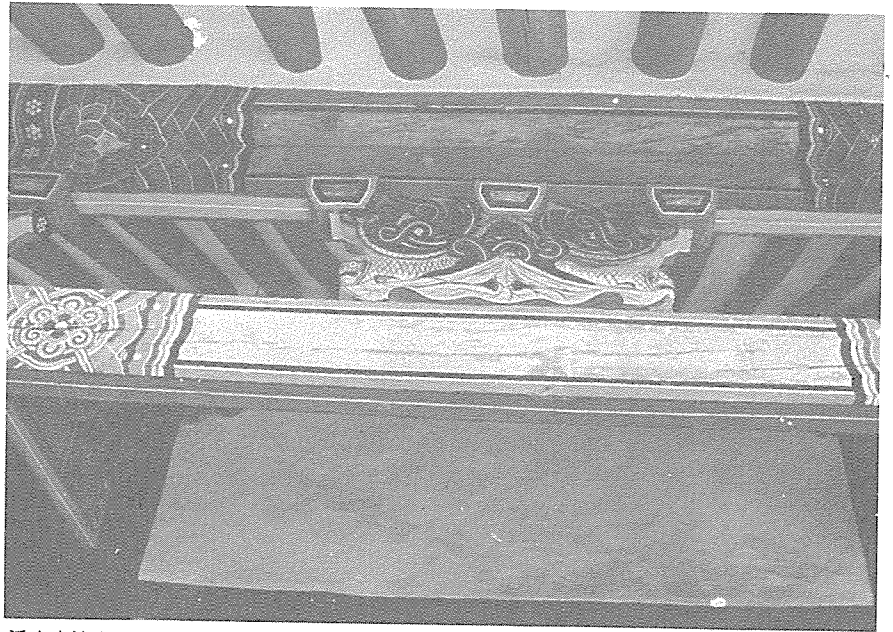
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수사 법당은 뒷편 原形에서 보면 기둥이 높고 柱間이 좁은 構築形에 속하는 것이어서 後補된 前面觀과는 성격이 확연하게 다르다. 서투른 분들이 前面만 보고 집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려 하지만 설익었다는 평가를 남에게서 받기 쉬운 노릇이다.

앞퇴를 통하여 들여다 보이는 柱間에 문짝들이 달렸다. 가운데간(御間)에는 네짝의 四分間이 달렸는데 아랫도리엔 궁관을 끼우고 윗쪽엔 울개미안통 거풍의 가득히 꽃의 무늬로 꾸민 살대가 구조되어 있다.

이 꽃살대는 보통 짜(組立)서 만드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 짜는 것은 가닥의 살대를 十자로 直交시키거나 빗살, 소슬빗살 등으로 織造하는 것이나 이 문짝은 널빤지를 깎아내어 透刻하면서 화면을 구성한 것으로 마치 폭이 넓고 화면이 긴 大屏의 花鳥圖를 보는 듯한 畫趣(화취)를 지녔는데 자세히 보면 花瓶에 꽂은 꽃을 圖案한 畫意이다. 불단에 장치한 供花와 같은 모습이다. 供花의 生態를 윤기있게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木刻으로 고착시킨 그런 의도를 지니고 있다. 아마도 꽃꽂이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되리라는 기대를 갖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색색으로 丹青까지 하여서 꽃은 한층 더 아름답고 생동감에 넘친다.

丹青된 木刻品은 창방 위에도 있다.

花盤이 그것인데 素材로 물고기가 이용되었다. 蓮華와 荷葉과, 줄기가



淨水寺法堂의 물고기무늬화반

어울린 사이로 두마리의 물고기가 노닐고 있다. 맑은 물(淨水)의 연당에서 볼 수 있는 生態가 묘사된 것이다.

법당이 곧 蓮塘이 된다는 생각이면 그 안에 물고기로 의탁한 人傑들은 신나게 헤엄칠 수가 있다. 부처의 넓은 心志가 가득한 法堂이라는 蓮塘에서 신바람나게 헤엄치고 다닐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조각 한가닥에서 布教를 위하여 苦心한 흔적과 善知識들의 사색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집에 표현되어 있는 무늬인데 이런 무늬의 상징성과 그 무늬가 바탕에 깔고 있는 깊은 내용은 집의 성격을 잘 설명하고 있다. 花盤이나 꽃살무늬의 해석으로 이 건물의 쓰임과 창건된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무늬의 對話는 무생물이지만 옆의 바위에도 계속된다. 바위가 지니고 있는 전설도 그런 면에서 文化性을 갖게 되는데 이 바위의 문화는 精靈性에서 더욱 난숙되어서 우리 민족 심성 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다. 그래서 법당과 바위가 共存할 수 있고 그런 바위가 거기에 있으므로 해서 절간의 터전으로 선택하는 수가 많다.

淨水寺도 각씨바위가 그 자리에 있어서 법당터를 거기에 마련하였다고 믿어진다. 바위문화의 위대함인데 우리나라의 바위문화는 선사시대로부터 이미 발현하여 岩刻된 무늬와 형상을 많이 남겼고 天祭壇, 祈子岩, 알터와 같은 신비에 가득찬 것들을 수도룩하게 남겼다.

건설부 측량업 등록 제1342호



건설의 기수

대한 측량 설계 공사

1급건설기사 · 1급측량기사 · 지적기사

대표 김 총 일 서울 · 성동구 구의동 252-15 Tel. 446-6393

업무안내

측
량

1. 현황 측량
2. 토목 측량
3. 지형 측량 (고저 측량)
4. 중형단 측량
5. 시공 측량
6. 지적 측량

측
량
·
설
계

1. 토목설계, 시공감리
 2. 구조물설계
 3. 토지형질변경 (지목변경행위) 허가수속
 4. 일단의 택지조성사업허가 수속
 5. 연립주택 (아파트) 건설입지측량, 설계
- ※ 측량, 토목설계 상담환영